

겨울 한파 이겨낸 '구례 감자' 수확

33농가 10ha 규모 감자 시설하우스 운영 다음달 10일까지 수확...작황 30%나 감소

구례군에서 지난 1월 연피해(동해)를 이겨낸 시설하우스 감자 수확이 한창이다.

19일 구례군에 따르면 17일 구례군 용방면 소재 시설 하우스 1ha에서 감자 수확을 시작했으며 4월 10일까지 수확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례군에서는 33 농가에서 10ha 규모의 감자 시설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닥친 한파로 시설 하우스 농가들이 재배 중인 감자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감자 작황도 30% 이상 감소했다.

농민들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수확하는 감자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수확한 용방면 홍성호(54) 씨는

“냉해로 인한 고사 피해는 가슴이 아프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란 감자들이 대견하고 수확까지 이르게 돼 기쁜 마음이다”고 말했다.

구례군 용방면 시설 하우스 재배 농가는 지난 1월 한파로 26곳 9.6ha에서 3억 원 규모의 병해피해를 입었다.

영하 10도 아래 강추위가 1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지하수 사용량이 급증해 하우스의 수막 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은 것이 피해 원인이었다. 수막 시설이란 지하수로 수막을 만들어 외부의 찬 공기가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절기 난방 방법이다.

구례군은 피해 농가에 정도에 따라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급했다. 농약대는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 대파



대는 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으로 피해 농가에 지원했다.

또 피해 작물의 생육 회복을 위해 영양제 투여, 시설 내 온·습도 관리, 병해충 방지 등 기술지원도 병행했다.

군은 1대당 200평 정도를 커버하는 온풍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90대 정도의 물량이 신청됐으며, 조기에 설치

를 완료할 예정이다.

감자 수확 농가를 찾은 김순호 군수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각종 농산물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조사를 면밀하게 추진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

농가 일손 부족 해결

화순군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위탁 운영하던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올해부터는 직영한다.

농촌인력 지원센터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맞춤형 농작업 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손 공급으로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인력 구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인력 수요가 많은 작물인 복숭아,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는 영농작업반을 별도로 구성해 농작업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생산성 증대에 농가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작업자의 경우,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광주시 등 인접 지역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작업자에게는 교통비 지급과 농작업 간 사고에 대비해 단체 상해보험도 적용된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 또는 농작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센터(061-373-3780)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농촌에서 살아보기, 섬진강 봄 물결 가득한 곡성 어때”

최대 6개월 귀촌 체험 5가구 거주 공간·교육 수강 등 지원

곡성군이 오는 24일까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5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림부에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이름으로 총 3가지(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 참여형) 농촌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곡성군은 그 중 귀촌형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곡성군 죽곡면 강빛마을에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농촌에 대한 이해와 지역에 대해 알아보는 교육과 영농실습 교육 등을 제공받게 된다. 월 15일 이상 교육에 성실히 출석한 참여자에게는 30만원의 교육수당도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전남 지역 외에서 거주하

는 만 18세 이상 도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전남 외 타 지역이라도 농촌지역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신청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https://www.returnfarm.com:444/>)에서만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거기에서 원하는 지역과 유형 등을 선택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신이 농촌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농촌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등을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섬진강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 대도시와 가까운 기반시설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곡성군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농정과 미래농업팀(061-360-8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양혜영기자

나주시, 반복되는 농작물 저온피해 막는다

강인규 시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시험포장 방문 점검

나주시가 반복되는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나주시는 강인규 시장이 지난 17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와 세지면 시험포장, 봉황 농가 등을 방문해 저온피해 예방 시스템 대책수립 현황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저온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품질 저하는 물론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더군다나 배·복숭아·단감 등 과수는 개화기 전후 이상 저온현상으로 인한 암소 고사로 결실불량, 변형과가 발생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업기술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

근 3년간 2018년 1809ha, 2019년 1827ha, 2020년 1959ha에서 농작물 저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매년 반복되고 점차 광범위해지는 저온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배연구소 및 과수재배농가와 연계한 시험포장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차광망, 흑색필름 활용과 발열송풍기 시험 가동 등을 통해 과수 개화 지연에 따른 저온피해 예방 효과 유무를 검증하고 있다.

여기에 타 농작물에 비해 피해규모가 큰 나주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방상팬, 미세살수장치를 지원하고 나주배원에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개화가 늦어 저온피해에 강한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고품질 '담양한우' 육성 ... 종축개량 박차

수정란 이식 사업 설명회

담양군은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담양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축개량 수정란 이식 설명회를 추진했다.

참석자 간 거리 확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점검, 소독 실시 등 충분한 방역 조치를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정란 이식 수태율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 방법 교육과 대상자별 수정란 이식 시기



및 두수 설정 등을 설명했다.

한우 산업은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한우 자급률 감소,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소득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로,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축개량은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사업 중 하나다.

수정란 이식은 우량 암소를 활용해 수정란을 생산한 뒤 저능력 번식우에게 이식하여 우량송아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올해

는 종축 개량을 위한 수정란 이식 128두를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군에서는 종축개량을 위해 2009년부터 수정란 이식, 정액공급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2017), 농림경제주 한우개량사업소(2018)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철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수정란 이식사업을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와 함께 담양군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